Gallery LVS 전시 보도자료

왕현민 개인전

폴리곤(Polygon)

2017. 4. 13 (Thu) - 4. 29 (Sat)

Gallery LVS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7. 4. 13 (Thu) - 4. 29 (Sat)
전 시 명: 폴리곤(Polygon)
참여작가: 왕현민 (Wang Hyunmin)
장 소: Gallery LVS (갤러리 엘비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7길 33 (신사동, 쟈스미빌딩 B1)
Opening Hour 9:00 - 18:00 (Mon-Fri), 10:00 - 17:00 (Sat)
Opening Reception: 2017. 4. 13 (Thu) 17:00
전시문의: T. 02-3443-7475 E. info@gallerylvs.org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espacesol PW: guest**
내려받기용 **"2017. 4 왕현민"** 폴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시내용

갤러리 LVS (신사동)는 2017 년 4 월 13 일부터 4 월 29 일까지 왕현민작가의 개인전시 '폴리곤(Polygon)을 개최한다.

왕현민작가는 나무의 물성을 이용, 가공하고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보완하여 나무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작가이다. 나무가 지니는 묵직함과 단단함을 얇게 쪼개어 무게를 덜어낸 뒤, 이들을 엮어내는 작업을 통해 가구의 기능을 지닌 오브제를 제작한다. 작품은 내부의 골격을 표면으로 노출시킨 구조와 곡선의 유기적인 양상으로 그 형태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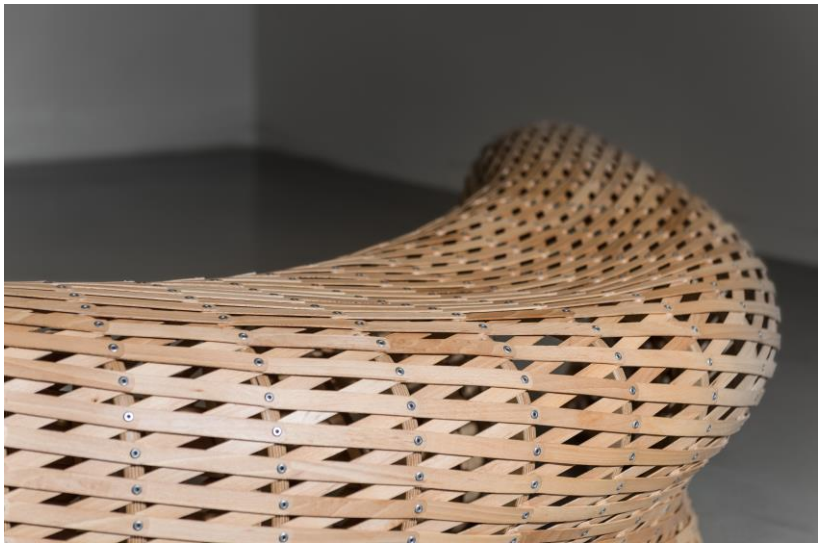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와 유기적인 형태의 작품을 작가는 '폴리곤(Polygon)'이라 이름 붙인다. 이는 제작방식과 작품에서 보여지는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폴리곤은 3D 의 형태를 구성하는 다각형의 기본단위로 이들의 집합을 통해 작품이 형성되며, 작가는 이 골격 자체를 드러내어 폴리곤 패턴을 그대로 노출한다. 왕현민 작가의 작품은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그 자체가 텍스처를 지니게 되는 작업이다. 보통은 2D 이미지의 텍스처 맵을 3D 의 오브제에 입혀 작업에 질감과 촉감을 생성하는데, 작가는 형태가 놓여있지 않은 공간에 텍스처를 끼얹는다. 매핑된 곡선의 형태에 작가는 불과 폭이 2mm 밖에 되지 않는 나무조각과 리벳을 이용해 사방으로 연결하여 구조화한다.
이와 같은 제작방식은 유기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나무 조각은 뼈대에서 이음새, 이음새에서 골조로 벤치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오브제는 재료와 제작방법, 존재하는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깊숙이까지 시선을 끌어당긴다. 맞닿아 있는 나무조각 사이의 빈틈과 그 틈새로 겹쳐져 보이는 반대편의 구조,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공간까지 어렴풋하게 시선이 닿는 효과로 인해 작품의 텍스처가 만져지는 시각적 촉감을 경험 할 수 있다.

작품은 겹쳐짐과 빈틈의 연속으로, 공간에 흡수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며 공간과의 호흡의 과정을 거친다. 작품은 공간과 더불어 구조를 이루며 채워지고 비워내기를 반복하며 조화롭게 존재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아티스트 디스커버링 프로젝트 (Artist Discovering Project)"의 일환이다. 본 프로젝트는 갤러리와 2016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작가를 결합으로써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 주요 전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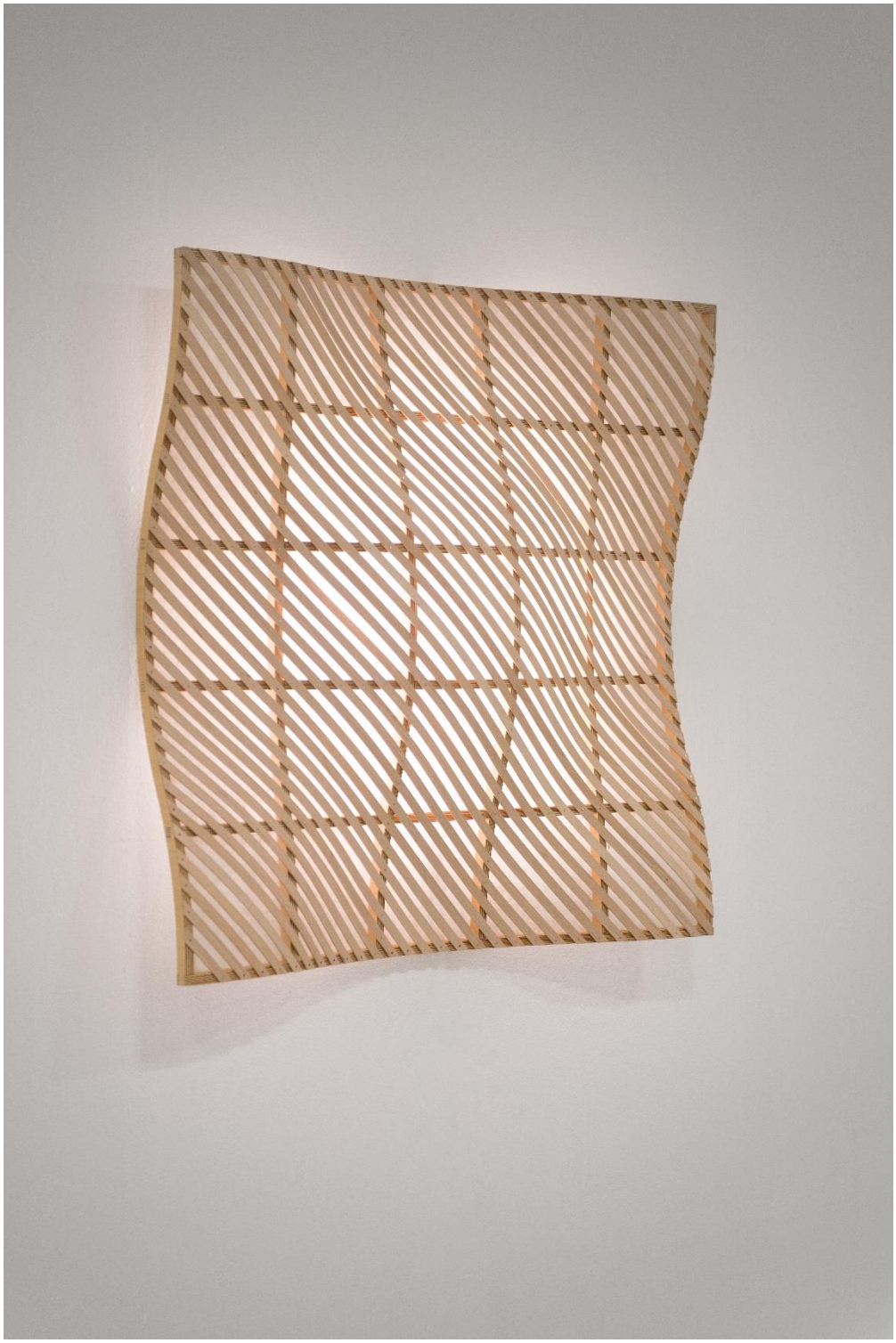


왕현민_Polygon Bench 05_180 x 60 x 50 cm

왕현민_Polygon Bench 05_180 x 60 x 50 cm

왕현민_Polygon Bench 02_400 x 120 x 66 cm

왕현민_Wave Lighting 01_80 x 80 x 8 cm



왕현민_ Polygon Lighting 02_100 x 100 x 15 cm

왕현민_Polygon partition 01_ 150 x 200 x 20(each) 6pcs

왕현민_Wave Cabinet 04_ 80 x 75 x 30 cm

■ 작가약력

2010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전공 졸업

2015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산업공예학과 가구디자인전공 졸업

개인전

2017 갤러리LVS, 서울

2015 ‘Organic Structure’ 석사청구전, 미부아트센터, 부산

2013 ‘Organic Space, 유기적 공간’ 개인전 이음아트스페이스, 울산

2013 ‘Organic Pattern’ 개인전, 이듬스페이스, 부산

단체전

2010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기획전 craft story,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12 일상은 축제 7, 부평아트스페이스, 부산

2014 ‘crAft, cRaft, crafT‘ 단체전, 수가화랑, 부산

2014 ‘Seoul Design Festival’ 신예디자이너 참가, COEX, 서울

2015 ‘Cement On the Table' 6 인전, 돋음갤러리, 부산

2015 ‘물성으로부터展’, 동아대학교 석당홀, 부산

2015 ‘2015부산국제영화제’ 디렉터스체어 디자인, 파크 하얏트, 부산

2015 ‘Art in the park’, 미로갤러리, 부산

2015 ‘BFAA’ 대형조각설치, BEXCO, 부산

2015 ‘유기적 공간展’, 갤러리 아트숲, 부산

2015 ‘부산디자인페스티벌’ 신인디자이너, BEXCO, 부산

2015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신인디자이너, COEX, 서울

2015 ‘공예트렌드페어’, COEX, 서울

2016. 2. ‘The Beauty of Ceramic & Furniture展’, 목금토갤러리, 서울

2016. 2. ‘DNA展’, 대구미술관, 대구

2016. 3. ‘D:cubu’, 소다미술관, 경기도 화성

2016. 5. ‘Park에서 Art를 논하다’, 미로갤러리, 부산

2016. 5. Art Busan, Bexco, 부산

2016. 7. 연오재갤러리, 부산

2016. 8. KOFURN '한국가구디자인협회전', Kintex, 경기도 일산

2016. 9. '휴식', 공예작가5인전, 해운아트갤러리, 부산

2016. 9. '제43회 한국공예가협회전', 문화역서울284, 서울

2016. 10. '부산디자인페스티벌'참가, Bexco, 부산

2016. 11. 'Selected EDITION : Art & Design,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점, 부산

2016. 12. 공예트렌드페어, Coex, 서울

2016. 12. '다시, 빛을 말하다', BNK Art Gallery

2017. 3. 'After-image of the Surface', 마루누마 갤러리, 일본, 사이타마현

Biography

2010 Bachelor of Fine Art, Kyungsung University

2015 Master of Fine Arts(Craft), Kyungsung University

Solo Exhibition

2013 ‘Organic Pattern’ Idm Space, Busan

2013 ‘Organic Space, Ium Art Center, Ulsan

2015 ‘Organic Structure’, Miboo Art Center, Busan

Group Exhibition

2010 'Craft Story', Busan University Art Center, Busan

2012 'Everyday is a Festival 7', Bupyoung Art Center, Busan

2014 ‘crAft, cRaft, crafT‘, Suga Hwarang, Busan

2014 ‘2014 Seoul Design Festival’ Up-coming Designer, COEX, Seoul

2015 ‘Cement On the Table', Dodum Gallery, Busan

2015 ‘From Property’, Sukdang Hall Dong-a University, Busan

2015 ‘2015BIFF’ Director's Chair Design, Park Hyatt, Busan

2015 ‘Art in the park’, Miro Gallery, Busan

2015 ‘BFAA’, Installation Sculpture, BEXCO, Busan

2015 ‘Organic Space’, Gallery ArtSoop, Busan

2015 ‘2015 Busan Design Festival’ Up-coming Designer, BEXCO, Busan

2015 ‘2015 Seoul Design Festival’ Up-coming Designer, COEX, Seoul

2016. 2. ‘The Beauty of Ceramic & Furniture’, Mokkumto Gallery, Seoul

2016. 2. ‘DNA展’, Deagu Museum, Daegu

2016. 3. ‘D:cubu’, SODA Museum, Hwasoeng

2016. 5. ‘Art in the park’, Miro Gallery, Busan

2016. 5. Art Busan, Bexco, Busan

2016. 7. Yeonoje Gallery, Busan

2016. 8. KOFURN ‘Korean Furniture Design Association Exhibition’, Kintex, Il-san

2016. 9. ‘Rest’, 5 People Exhibition, Haeun Art Gallery, Busan

2016. 9. ‘43rd Korean Craftman Association Exhibition’, Mun-wha Station Seoul284, Seoul

2016. 10. ‘Busan Design Festival’, Bexco, Busan

2016. 11. ‘Selected EDITION : Art & Design, Shinsegae Department Centum City, Busan

2016. 12.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6. 12. ‘Again, Say the Light’, BNK Art Gallery

2017. 3. ‘After-image of the Surface’, Marunuma Gallery, Saitama, Japan

■ 작가노트

-The Organic Structure-

구조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의 삶과 함께 발전 해왔다. 큰 건축물부터 작은 생활용품까지 구조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재료의 발견을 통해 새로운 구조의 패러다임이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곡면에 대한 구조를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보다 유기적인 형태의 구조물의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의 구조는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하중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발전해왔지만, 구조를 이루는 재료가 디자인의 일부가 되면서 구조 자체로서의 조형미가 주목받기도 한다.
구조는 사물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사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사물들은 보다 매끈한 표면 속에 구조를 감춤으로써 사물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매워진 부분의 막힘은 차단, 폐쇄, 단절, 제한, 방어, 억제 등과 같이 개인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향의 개념을 발현하고, 반대로 뚫림은 공유, 개방, 소통, 공감, 교류, 교감, 화합 등과 같이 상생작용을 나타내는 순수의 개념을 발현하다.

유기적인 형태와 기하학적인 구조는 상반된 개념이면서도 서로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 시리즈의 작품에서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면서 유기적인 형태를 구현해내기 위해 구조미를 강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유기적이면서 구조적인 대비되는 개념이 공존하는 조형미를 찾아보고자 한다.